# 民族說話의 分類의 研究

——四個文獻所載의 說話分類의 高麗國祖說話의 研究——

張德

順

- I. 說話分類
- 1. 序 言
- 2. 文獻所載의 說話概觀
  - 1) 三國史記
  - 7) 三國遺事
  - 3) 世宗實錄地理志斗 東國與地勝覽
- Ⅱ. 高麗國祖說話의 研究

- 1. 說話의 概觀
- 2. 總括的인 考察
- 3. 說話的 分析 旋流夢斗 買夢——作帝建斗 類 利·居陁知——龍女交婚說話斗 虎 公說話——結言

## I. 說 話 分 類

#### 1. 序 言

우리 民族說話의 本格的인 研究를 위한 밑바침은, 무엇보담도 資料의 蒐集·整理라고 생각한다.

이 資料의 整理는 두가지로 大別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各文獻에 散在해 있는 說話의 整理, 分類이고, 다른 하나는 口承說話의 蒐集・整 理인 것이다.

그러나 現段階의 우리의 說話研究는 이 兩者의 어느 하나도 未完成狀態에 있다. 口承傳說의 蒐集은 未備한대로 꾸준히 持續하여 몇몇 傳說

集도 發刊되었으나, 文獻所載의 說話整理는 거이 未踏의 境地에 있을 뿐이다. 나는 數年前에 說話의 寶庫라고 할 수 있는 三國遺事의 說話를 分類整理하였다.<sup>①</sup>

그러나 이것으로는 斷片的인 說話의 研究는 可能하나 說話의 綜合的 研究에 있어서는 지극히 不充分하다는 것을 느껴서 항상 餘他文獻의 說話整理를 피하여 오다가, 今年 여름에 三國史記·世宗實錄地理志,東國與地勝覽의 三大文獻에 收錄되어있는 說話의 分類 整理를 끝마치게 되었다. 본래의 計劃은 高麗史所載의 說話까지를 整理하려 했으나 諸般 事情이 이를 許諾지 않어 이것은 다음 機會에 미루기로 했다. 사실 高麗史까지를 整理하면 우선 文獻所載의 說話分類는 一段落을 젖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는 野乘類의 文獻이나 個人文集等의 說話分類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三遺・三史・世宗地理志・東輿覽등 四大文獻의 說話만으로도 이 方面研究에는 적지 않은 科益이 있으리라고 밀어 의심하지 않는다.

### 2. 文獻所載의 說話概觀

#### 1) 三國史記

三國史記는 歷史의 叙述에 置重하였기 때문에 金富軾은 意識的으로說話的要素를 削除해 버렸다. 따라서 本格的 說話는 거이 없다. 이런 意味에서 三國史記는 三國遺事와는 相反된 樣相을 보이고 있다. 이 史記나 遺事는 지금은 傳하지 않으나 當時까지는 遺存하였던 <舊三國史>

① 1958年 7月 〈人文科學 2輯(延世大學校 文科大學刊)에 揭載製고 拙著〈國文學通論〉 卷末에 防錄하였음.

나 〈古記〉를 臺本으로 編纂한 것이라고 推測되는데 이 原本을 引用함에 있어서도 金富軾은 主로 正史에 가까운 것을, 一然은 說話類를 主로하여 採錄하였다. 마치 史記는 歷史가 그 줄거리가 되고, 說話는 그것을 장식하는 꽃이나, 잎의 役割도 하지 못할 정도라면, 遺事는 오히려說話가 즐거리가 되고 歷史는 그것을 장식하는 잎이나 꽃이 되어 있다고볼 수 있다.

三國史記에서 그 一例를 들면「論曰 新羅朴氏昔氏 皆自卵生 金氏從天 入金櫃而降 或云 乘金車 此尤能怪不可信 然世俗相傳爲之 實事」©라 하여 卵生,櫃生의 神話를 說怪하여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判斷하였으니 그 史筆에서 說話를 期待하기란 오히려 椽木求魚格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위의 記錄에서「然世俗相傳爲之 實事」라 하여 說怪한 것이지만,傳해내 려오는 사이에 實事가 되고 말었다는 所謂 <說話의 歷史化〉의 過程은 認識한 史家익을 진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金富軾은 비록 그 前身이 非合理的인 荒誕之事라 하더라도, 이미 歷史化된 事實은 忠實司 引用하되, 아직 神話的 領域에 머물러 있는 說話的 要素에 대해서는 大膽하게 깎아버리는 態度임을 집작할 수 있다. 또 사실에 있어서 三國史記는 이러한 姿勢에서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를 遙讀하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共通的인 不快感은 對中國關係의 事大的인 史筆의 傾向이다. 우리나라의 歷史를 叙述하면 서도 그 事實의 規範이나 典例, 또는 批判標準은 徹頭徹尾 中國의 歷史 를 仍用하였던 것이다. 이 中國의 歷史에 어긋나는 것은 깡그리 〈非〉 로 採點해 놓는 獨斷的이면서도 事大的인 態度가 處處에서 發見된다. 그

② 三國史記 卷十二 新羅本紀 十二 敬順王條

'例를 한 둘 引用하겠다.

新羅의 治解王이 始祖廟에 拜謁하고 아버지 骨正을 世神葛文王으로 삼은데 대해 論評하기를 「論曰 漢宣帝即位 有司奏 爲人後者爲之子也 故降其父母不得祭 尊祖之義也 是以帝所生父稱親 諡曰悼 母曰悼后 此諸侯王 此合經義 爲萬世法 故後漢光武帝 宋英宗法而行之 新羅自王親入繼大統之君 無不封崇其父稱王 非特如此而己 封其外舅亦有之 此非禮 固不可以爲法世」③라 하여 父를 王으로 稱하는 것을 非禮요 非法이라고 斷定效는데 이는 어데까지나 中國을 基準으로 한 判斷인 것이다.

또 新羅 奈勿王이 同姓의 妃(味鄒王의 말 金氏)를 娶한데 대해서 金 富軾은

論曰 取妻不取同姓 以厚別也 是故魯公之取於吳 晋侯之有四姫 陳司 敗鄭子產深誠之 若新羅則不止取同姓而己 兄弟子姑姨 從姉妹 皆聘爲妻 雖外國各異俗 責之中國之禮 則大悖矣 若匈奴之 亟母報子 則又甚於此矣②

로 하여 中國禮를 絕對的인 標準으로 삼었고, 甚至於는 匈奴族의 어미를 奸하고, 子息을 奸하는 惡俗까지를 引用하여 大責한 것은 그의 事大 思想이 얼마나 强烈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같은 專大的 姿勢는 對中國의 外交關係記錄에 있어서도 역시 到處에 나타난다. 外交文書中에서도 中國關係는 必要以上으로 全文을 揭載하는가 하면 國內關係에 대해서는 극히 간단히 處理해 버렸다. 說話的 分野에 있어서도 우리의 民族說話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인적한 그가中國關係에 있어서는 至極히 詳細하다 그 一例를 望德寺塔에 關한 說話에서 들어보겠다.

望德寺塔動(唐令狐澄新羅國記曰 其國爲唐立此寺. 故以爲名 兩塔相

③ 三國史記 卷二 新羅本記二 沾解尼師今條

④ 三國史記 卷三 新羅本紀三 奈勿尼師今條

對高十三層 忽震動開合 如欲傾倒者數日 其年祿山亂 疑其應也). ⑤ 異事와 忘誕을 忌하는 金富軾으로서는 이 寺塔開合의 奇事에 對해서 는 一言半句의 論評도 加하지 않었다.

論曰 臣聞之 古有女場氏 非正是天子 佐伏義理九州耳 至若呂雉武曌 值幼弱之王 臨朝稱制 史書不得公然稱王 但書高皇后呂氏 則天皇后武氏者 以天言之 則陽剛而陰柔 以人言之 則男尊而女卑 豈可許姥嫗出閨房 斷國家之政事乎 新羅扶起女子 處之王位 誠亂世之事 國之不亡 辛也書 云牝雞之晨 易云羸豕孚蹢躅 其可不爲之戒哉⑥

라 하여 女子가 閨房을 나와 國政을 專斷하는 그 나라가 亡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多辛하라고 했고, 女王을 牝雞 혹은 弱豕에 比하였던 것이다. 더욱 그 批判의 基準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中國側史料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善德女王에 관해서 三國遺事나 殊異傳에는 아주 奇拔하고 浪漫的인 說話가 傳해지고 있는데 이 史記에서는 이런 說話가 去勢되어 있다. 女王을 無條件 貶視하는 金富軾이가 女王을 美化, 英雄化하는 이런 說話를 그의 史記에 引用할理가 없다.

이같은 事大自卑의 史觀과, 說話世界의 不信을 信條로 내세운 金富縣의 붓에서 民族的 情緒가 넘지는 說話를 求한다는 것은 거이 不可能에 가깝다. 따라서 神話나, 本格的인 獨立說話는 皆無하다고 해도 過言이아니다.

그러나 說話의 片鱗이라고 할 수 있는 斷片的 資料는 제법 挿入되어 있는데, 이것도 歷史的 事實과의 因果關係를 說明하는 凶兆나 異事가

⑤ 三國史記 卷九 新羅本紀九 景德王 十四年條

⑥ 三國史記 卷五 新羅本紀五 善德王 元年條

絕對多數이다. 이것이 三國史記所載說話의 特徵이라면 하나의 特徵일 수도 있다.

列傳에는 八十餘名의 人物을 採錄했으나,여기에서도 超人間的이고,魔術的인 說話的 要因은 完全的 除去해 버렸다. 같은 人物의 活動에 있어서도 遺事나 世宗地理志나,혹은 東與勝覺에는 比較的 與味롭게 潤色되어 있는데,이 史記에서는 그 〈與味로운 部分〉은 意識的으로 煎除해 버렸던 것이다. 金庾信같은 英雄에 있어서도 遺事의 記錄은 국이 簡明하면서도 說話的 香臭는 豊富하게 풍기지만,史記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崔致遠의 경우도 殊異傳의 〈雙女墳〉같은 留唐中의 逸話는 이 史記에서는 그片鱗조차 찾어볼 수 없는 형편이다.이와같은 例는 非一非再이다.東明王,蓋蘇文,武王,首露王,昔脫解,異次頓,善德王,金春秋,景文王,憲康王等等의 人物들을 遺事와 比較해 볼 때,史記는 〈人物의 英雄化〉,〈歷史의 擴大〉라는 點은 秋毫도 考慮하지 않었던 것이다. 要권대 說話가 歷史를 기름지게 하고 또 歷史에 依하여 說話가支撑하고 있다는 古代史의 特徵이 전혀 去勢되었다는 것이다.

아래에 本分類의 統計를 提示하겠다. 이 分類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 운 것은 壓皮의 說話의 區別이다. 어데까지가 歷史이고, 어데서부터가 說話인지 凱然한 一線을 굿기가 至難하다. 더욱 歷史를 記錄한 史書일 수록 이 문제는 더 어렵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分類者의 主見이 作用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곧 分類者가 史實만으로 叙述되었다고 認知되는 것은 歷史로, 그리고 같은 史實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部分에 說話的 分子가 깃드렀다고 認知되는 것은 說話로 다루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說話의 分類란 分類者의 主觀에 따라 決定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統計는 絕對的인 客觀性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全體的이고 綜合的인 說話分類의 方法,態度는 이미 三國遺事를 分類할 때에 言及한即愈

⑦ <人文科學> 2輯, 延世大學校 文科大學刊.

있기에 럭기에서 重論하지 않겠다. 나는 이번 分類에서 說話的 要素가 若干이라도 加味된 事實은 모두 搞出하노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滿 全을 期했다고는 斷言할 수 없다. 오직 全般的인 說話研究에 이바지 될 가 하여 여기 그 分類의 統計만을 提示하겠다. 이는 三國史記뿐만 아니라, 三國遺事,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興地勝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說話分類의 本文은 枚數關係로 여기 全載하지 못하고 그 統計만을 소개한다는 것을 여기 밝혀 둔다.

三國史記中 〈年表〉와 〈雜志〉에는 說話가 거이 없기에 이는 分類에서 完全히 除外되었다. 史記의 分類對象은 新羅,高句麗,百濟本紀와 列傳에 限하였다.

| 1  | 傳 說(133)               | 1. 奇事與變95          |
|----|------------------------|--------------------|
| 1. | 泊名                     | 2. 結婚・誕生・恆妊17      |
| 2, | 姓名30                   | 3. 夢・異人・岡譈・陰助・治病29 |
| 3. | 寺院4                    | 4. 諸動物이 登場하는 說話    |
| 4. | 人物                     | 龍15                |
| ō, | 基也(承舜・信物等)17           | 魚 龜 8              |
| õ. | 比較的 獨立說話에 가까운 것 ~~~~24 | 其他動物27             |
| 1  | 民間說話(191)              |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史記에는 神話가 하나도 실려 있지 않고,本格 說話라고 할 수 있는 獨立說話가 적고, 墨皆가 斷片的 瑣言뿐인 것이 다.

### 2) 三國遺事

三國遺事는 說話文學의 一大集成이다. 所謂 怪力風神의 興味있는 說話의 賣庫라 할만 하다. 이는 一然의 自叙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遺事의 編纂은 意識的으로 說話收錄에 注力하였던 것이다.

級曰 大抵古之聖人 方其禮樂興邦 仁義設教 則怪力亂神・在所不語・ 然而帝王之 將與也・曆符命 受圖籙必有以異於人者 然後能乘大學 握大 器 成大業也 故河出圖 洛出書 而聖人作 以至虹繞神母而誕義 龍感女登 而生炎(中略) 然則三國之始祖 皆發於神異 何足怪哉 此神異之所以 漸 諸篇也 意在斯焉®

이렇게 그는 歷史에 反映된 神異之事가 何等의 怪異할 것이 없다고 闡明하였고 그의 붓이 또 그대로 行爲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三國史記는 儒教的으로 보아서 怪亂하면 抹削을 꺼리지 않었고, 道學上으로 보아서 鄙野한 것이면 變改하기를 서슴치 않고, 字句의便을 爲하여선 伸縮과 删添을 任意로 하고, 好惡의 情을 위하여서는 取捨와 剪裁를 例事로 하여, 그 事實에 忠하려는것 보담 차라리 文辭에 제하고, 그 原相에 即하는 것 보담 차라리 主觀에 拘하려 했기 때문에 의 이 三國史記에서 神話나 傳說을 찾어본다는 것은 거이 不可能하다.

그러나 이 「三國史記의 主觀的 自錮와 武斷的 擅廢에 反하여, 古記의 遺珠를 原形대로 收綴하여 博古와 아울리 傳奇 資를 삼으려 한 것이 실로 三國遺事이니 그 目的이 다만 軼事遺聞을 便宜히 纂集함에 있을 따름인즉 그 事의 說怪를 嫌할 것 없고, 그 文의 鄙陋를 忌할 것 없이 진실로 三國事實의 本史에 貝漏한 者로 耳目手에 及하면 문득 採錄한 것이 」®이 三國遺事인 것이다. 이와같이 三國遺事는 說怪를 조금도 꺼리김 없이 採錄한 것이 오히려 그 特徵이라고 할만한데, 安順庵같은 者는 이 보배롭고, 흥미로운 說話가 專혀 異端虛誕之說이라고 不滿의 뜻을 表明하기도 했다®.

그러나 萬一 遺事가 史記와 꼭 같은 編纂方法을 仍用했다던가, 또는 所謂 妄誕이라는 說話的 要素를 删除해 버렸다면, 우선 이 文獻의 存在 의 價值조차 없을 것이고, 더욱 國史의 研究나 國文學研究에 있어서도

⑧ 三國遺事 紀異 卷第一

⑨ 崔南善 三國遺事 解題 五 價值

⑩ 周 上

<sup>(</sup>II-「······其書本爲佛氏立教之源流而作 故間有年代之可效 而專定異端虛誕之說」(東史綱目 探據書目)

別로 括目할만한 資料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는 如何間에 遺事에는 史記에 빠진 古傳이 많이 採錄되었고, 또 그 것이 거이 原形대로 引用되었고 異說이 있으면 있는대로 忠實히 收錄하여 參考에 至大한 便宜를 提供하였다. 說話이건 史實이건 撰者의 主觀 대로 改纂하려 하지 않은 態度가 處處에 보인다.

그 - 例로 圓光法師에 관한 記錄이 唐·郷二傳에 相異하게 傳하고 있음을 指摘하고, 敢히 詳定하지 못하겠으므로, 이를 辨코자 한字도 加減하지 않고 두 傳記의 글을 詳細히 記載하여 둔다고 했고 또 事實 그렇게 두 傳記를 자세히 紹介했다<sup>®</sup>.

②「…… 唐傳云 告寂皇隆寺 未詳其地 疑皇龍之訛也 如芬皇作王芬寺之倒也,據如上唐鄉二傳之文 但姓氏之朴群 出家之東西 如二人焉 不敢詳定 故兩存之(中略)故時人多惑之 因辨於此不加減一字 載二傳之文詳矣」(三國遺事卷四 圓光西學)。

②「……後人改作新羅異傳 潛記鵠塔璃目之事于圓光傳中,系犬滅事於毗虚傳 旣謬矣,又作 海東僧傳者 從而潤文 使賣聚無傳而凝誤後人 誣妄幾何」(三國遺事 卷四 寶壤梨木)。

隨伴하는 數 많은 愛國說話를 비롯해서 寺院, 地名의 緣起傳說, 古人의性的 思想에 관한 性器說話, 聖母 神人說話등등 실로 三國史記에서는 찾어볼 수 없는 資料가 許多히 採收되었다. 그리고 그 採錄된 說話가모두 이른바 怪力亂神이라고 儒者들은 忌하는 것이지만 一然은 그〈妄 誕〉과〈神異〉의 價值를 認定하고 意識的으로 이 方面에 注力한 勞心을 可히 집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意味에서 三國遺事야 말로 說話의 寶庫요, 民族詩의 集大成이라고 할만 하다. 아래에 三國遺事所數의 說話를 分類한 統計를 提示하기에 앞서 그 分類의 態度量 略述하겠다.

遺事의 說話分類도 一般的인 分類方法을 仍用하지 않음은 아니나, 여기에는 멎가지의 特殊한 條件이 있어 一般的인 方法을 그대로 適用하기 困難한 點이 있다. 그것은

첫째 이 說話들은 과거에 口傳으로 혹은 文獻으로 傳해 나타온 것이지만, 遺事에 이르러서는 一然이라는 個人의 붓으로 定着된 作品이라는 것.

둘째, 作者가 佛教的 信仰에 徹底한 僧侶이기 때문에, 너무 宗教的인面에 傾倒되었다는 것과, 따라서 作家는 宗教的 奇事異跡을 엄연한 歷史的事實로 다루었다는 점.

셋째, 혹은 興味있는 民間說話 같은 것도 作家의 趣意에 다리 若干의 修正과 削減이 作用하여,本格說話보다는 派生說話가 優勢하다는 것등이 그 重要한 條件들이다. 그리하여 遺事所載의 說話自體을 中心으로하는 것 만큼 어려까지나 그 說話들의 性格을 土臺트 하여 分類하는 것이 가장 便宜한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一例로서는 神話의 경우,嚴密한 意味에서의 正統的인 神話는 별트 없기 때문에,超人間的인 神力에 依하여 나라를 세운 建國說話와,그리고 神秘한 經路에서 태어나 百姓들의 推作을 받는 國王說話들을 神話로 보았다. 要利用 作者의 意識을 역보아 當時의 民衆들이 神聖觀하고,嚴肅한 것으로 崇拜하는 肇國의

事實과, 그 人物들의 活動을 神話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宇宙, 天體에 관한 神話는 거이 없고, 오직 派生的인 日, 月神話가 하나 있을 뿐이다.

이 分類는 全體的으로 神話,傳說,民間說話,佛教緣起說話의 四大別로 하였다. 여기 佛教說話을 따로 한 것은,說話의 絕對多數가 이에 屬하기 때문이고, 이것을 또 傳說(寺院,僧侶,聖具等)과 宗教的 一般說話(奇事,異跡等)로 區別하여 놓았다.

傳說에는 地名,寺院,姓名,人物 等에 곁들인 이야기를 主르 하였는데 이것은 傳說의 歷史化,合理化의 可能性이 많다는 特性을 살려서 미교적 歷史的인 一面을 介在시킨 것들은 모두 이에 分屬서茲고,民間說話는 莫然性이 있기는 하나,神話도 傳說도 아닌 것은 모두 여기에 包含시켰다. 그리고 위에서도 잠간 즐及한 마 있지만,分類者의 主觀으로 歷史的 要素와 說話的 要素를 區別하기 위해서 史實만으로 叙述되었다고 認知되는 것은 모두 除去하고, 어느 한 部分이라도 說話的인 因于가 절들였다고 認定되는 것은 이 分類에 넣었다. 아마 文字로 定着된文獻, 특히 歷史叙述에 가까운 文獻에서 說話를 分類함에 있어서는 이 分類態度에 多少 意見의 差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래의 遺事의 說話分類 統計를 소개하겠다.

| I  | 神話(16)       | 2. 似年,誕生20                                  |
|----|--------------|---|
| 1. | 日. 月前話       | 3. 息, 孝, 烈12                                |
| 2. | 建國河話 7       | 4. 岡識・占卜・凶兆・豫書26                            |
| 3. | 國王討話8        | 圖識 8  |
| I  | 傳 說(108)     | 占卜 6  |
| 1. | 地名傳說64       | 因兆9   |
| 2, | 姓名傳說29       | 豫音 3  |
| 3. | 其他(樹木, 動物)15 | 5. 沙에 관한 것23                                |
| M  | 民間說話(196)    | 6. 英雄 <b>, 復讐</b> (解怨)18                    |
| 1. | 交婚,結婚(迎奴)17  | 7. 陰助護國···································· |

| 8. 動物이 登場하는 話說話50        | 聖體・聖具傳說12               |
|--------------------------|-------------------------|
| 龍이 가장 많다. 그 중에서도 重要      | (佛舍利・佛頭骨・佛牙・聖衣・袈裟       |
| 힌 것만을 들어도 約 20. 다음으로 虎   | ・錫杖・念珠・枕等八種類의 12項目.     |
| 가 5. 그리고 龍. 蛇. 狐等 20種의 食 | 2. 宗教的 奇事異跡(宗教的 說話(107) |
| 獸를 헤아리는데 說話의 項目數는 約      | 雅空(昇天)10                |
| 50.                      | 治病 9                    |
| 9. 其他24                  | 逐邪 5                    |
| 여기에는 鶏貴・貴金・耳長・鬼神・        | <b>譚新進福 3</b>           |
| 地動・供変・巨人・美人説話等等 獨立       | 還生 7                    |
| 的이고 特殊한 것으로 19種類의 24項    | 神人・眞神・聖母現形30            |
| 目이 있다.                   | 其他 ······43             |
| ₩ 佛教緣起說話                 | (여기에는 神鳥報音・獅骨抱兒・魚       |
| 1. 傳說(121)               | 蒞受戒・塔影逐魚等 特殊社 <b></b>   |
| 寺院綠起傳說70                 | 話43種이 있다).              |
| 高僧・異僧・聖徒傳説39             |                         |

#### 3) 世宗實錄 地理地의 東國輿地勝覽

世宗實錄 地理志는 史記나 遺事에 比部 挿入說話나,斷片說話보다는獨立的인 本格的 說話가 絕對多數이다. 비록 量的으로는 적은 數의 說話를 지니고 있으나,種類는 比較的 多樣하고, 또 說話自體가 興味로서 퍽 肥大해 졌다. 그리고 金富軾과 같이 獨善的인 主觀으로 論評하지도 않고 勿論 添削도 없이, 오직 忠實하고도 詳細하게 說話를 소개하였을 뿐이다. 引用된 文獻이 確實하면, 반드시 그 文獻이나, 人名을 밝혔고, 그것이 明瞭치 않을 때에도,〈俗云〉,〈或云〉等으로 編者의 主觀이 아님을 밝혔다.이 嚴正한 客觀性은 說話蒐集의 가장 중요한 要諦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全해 編者의 意見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어데까지나 說話의 本質을 충분히 認識한 意見임을 알 수 있다.實際의 人物이면서도 그 誕生이 神異한 姜邯蒼의 說話를 金台鉉의 東國文鑑에서 引用하고, 그 末尾에 「定說似涉荒唐,然傳說為箕尾之精,申甫維崧嶽之降,獨於邯蒼何疑乎」與라고 註記한 것은 그 好例의 하나이다, 또 하나

의 例로서 麗朝의 異色的인 人物인 李靈幹에 관한 記錄을 들어보자. 그는 潭陽人이므로 全羅道 潭陽條 本文에서 세가지의 逸事를 소개했다. 그 마지막 애기가 朴淵에서 龍을 笞刑으로 다스라는 것인데, 이 說話는 黃海道 牛峯縣의 朴淵條에서 또 註記하고, 李齊賢의 朴淵詞까지 引用하여 이 이야기를 한층 더 浮彫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몇가지 例證으로서 이 地理志가 얼마나 說話面에 注力하였는가를 可히 점작할 수 있다고 본다.

이 文獻은 地理志인 만큼 東國與地勝覽과 相互 比較하면서 諸說話를 考究하는데에도 좋은 資料일 뿐 아니라 兩本은 모두 鄉土的 香趣와 土 俗的 素朴性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東國興地勝覽은 위의 墨例한 諸文獻들 보다 훨씬 後代에 編撰되었기 때문에 우선 時間的으로 된다. 따라서 發生한 說話가 많다는 것이 그 特 微이고, 또 이와같은 條件은 史記, 遺事, 地理志에 나오는 諸說話是会 集大成社 수 있는 位置에 있기 때문에 說話의 樣相이 극히 多樣스립다. 그리고 이 文獻은 韓土 全域에 亘한 廣範한 記錄이므로, 世宗地理志와 같이 地理에만 局限한 것이 아니다. 兩本의 內容을 잠간 比較해 보면, 地理志는 縣이면 縣, 郡이면 郡에 있어서 大概〈官員의 人員〉・〈沿革〉・〈四境〉・〈戶口〉・〈軍備〉・〈墾田〉・〈土產〉・〈人物〉・〈樓亭・寺院〉등의 顧序로서,統計數字는 比較的 詳細하나. 모두 事項에 있어지 극히 簡單하게 叙述한데 反하여, 與地勝覽은〈建置沿草〉・〈郡名〉・〈極氏〉・〈風俗〉・〈形勝〉・〈山川〉・〈土產〉・〈城郭〉・〈關防〉・〈蜂療〉・〈傳字〉・〈學校〉・〈解院〉・〈佛字〉・〈洞廟〉・〈古跡〉・〈名官〉・〈人物〉・〈題詠〉등등 相當히 넓은 範圍에 결쳐 編纂했다. 이런 內容을 說話的 見地에서 볼 때에 地理志의 경우는 說話가 棲息할 수 있는 項目이데야 極上〈沿車〉・〈人物〉・〈樓亭・寺院〉등에 限하지만, 與地勝覽의 경우는 거이 全 項目에

④ 世宗實錄 地現志 京畿 衿川縣.

전체 說話가 깃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與地勝覽의 編者는 完全癖 에 가사운 責任感이 있어서, 大小事를 거이 漏落없이 網羅하려는 努力 이 歷然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說話에 있어서도 그 出典, 典據등을 親 切히 밝혀 說話蒐集의 客觀性을 제법 지니고 있어 說話研究에 信賴함 수 있는 資料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編者가 說話의 信憑性을 强要한 다던가 또는 自身이 說話를 받는다는 傾向은 전혀 없다. 오히려 帶唐 無稽한 說話을 不信하는 態度가 處處에 보인다. 그 一例을 들던, 〈流 頭〉이 관한 說話에서 「金克己集 東都遺俗 以六月望 云云 因為禊飲 謂之 流頭 蓋以河朔避暑之飲 誤為禊飲耳」 おず 禊飲可む 民間信仰을 避 暑之飲이라고 現實的 解釋을 붙인 것이라던가, 또〈楡岾寺〉緣起說話에 서 閱瀆記에 나오는 五十三佛渡來說話를 장황할 정도로 자취히 引用은 하여 極히 怪妄하여 不足傳信이지만, 地名이 俱在하기에 附記했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이 不信은 하면서도 忠實하게 說話를 引用紹介했다는 것 은 저 史記의 編者인 金富軾과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아레에 地理志의 與地勝鹽 兩本의 分數類 紹하茲다.

65 東國與地勝覽 卷二十一 麑州, 風俗

⑩ 周上

同

**(17)** 

卷四十五 高坡、佛字

| 世宗實錄 地理志       | Ⅲ、民間說話(40)      |
|----------------|-----------------|
| I. 神 話 (II)    | 1. 奇事異跡         |
| 1. 蜂國神話5       | 2. 結婚・誕生・憶妊9    |
| 2. 英雄神話        | 3. 夢・仙人         |
| Ⅱ. 傳 競 (40)    | 4. 諸動物이 登場하는 說話 |
| 1. 地 名21       | 龍               |
| 2. 寺 院2        | <u> </u>        |
| 3. 姓名5         | 東國奧地勝覽          |
| 4. 人 物9        | I. 神 話 (8)      |
| 5. 其他(歌舞・風水号)3 | 1. 日 · 月 泸話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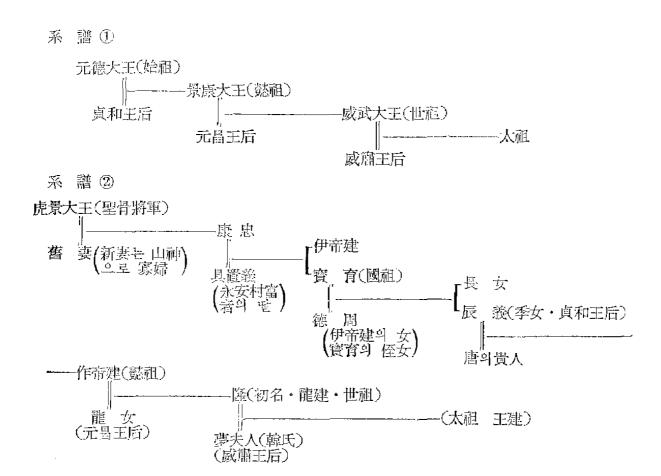
| 2. 阻逐顽酷1           | Ⅲ. 民間說話(180)       |
|--------------------|--------------------|
| 3. 壁壓神話4           | 1. 奇事,陰助32         |
| 4. 國王神話2           | 2. <u>**</u> 18    |
| 1. 傳 說 (408)       | 3. 交婚・結婚・誕生28      |
| 1. 地 名170          | 4. 弾人・異人・癇神28      |
| 2. 人 物             | 5. 助物에 관한 諸說話      |
| 斧子······109        | $b_{1}^{k}$ 26     |
| 烈女20               | <u> </u>           |
| 3. 寺院·祠廟······42   | 啦                  |
| 4. 歌 舞27           | 鳥資類3               |
| 5. 風 俗11           | <b>洪 他</b> 9       |
| 6. 其 他29           | 6. 其他說話11          |
| (여기에는 戀愛・戰跡・葉兒・迷   | (여기에는 圖識・占卜・辟邪・禳   |
| 信・友愛・姓名 等等 獨立해서 分類 | 祈・凶兆 等의 説話가 包含되어 있 |
| 하기에는 너무 최어서 便宜上 여기 | 中.)                |
| 에 分屬시켰다.)          | 4.7                |
| コーカルタイプスでもプ        |                    |

### II. 高麗國祖說話의 研究

前書. 이 研究는 위의 文獻中. 地理志・與勝覽・遺事所載의 說話是 土豪三하여 展開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1. 說話의 概觀

먼저 이說話의 理解에 便豆저 國祖의 系譜을 아래에 例示하겠다. 系譜®는 高麗史 高麗世系 의三代推奪의 記錄에서 引用한 것이고, 系譜®는 全寬毅의 編年通錄의 記錄을 中心으로 하였다. 이中에서 說話的 研究의 對象은 말할 것도 없이 系譜®이다.



系譜 ①과 ②에서 큰 差異는 첫째 ①은 太祖의 三代祖에 未及인데, ②에서는 六代祖까지 遡及했고, 둘째 ①에서 始祖인 元德大王이나 貞和 王后의 根源이 未詳인데, ②에서는 貞和王后가 寶育의 季女요, 이 季女 辰義가 唐의 貴姓과 同寢하여 作帝建(懿祖)을 낳었다 했으니, 이에 依 하면 懿祖以後는 唐孫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系譜 ②에서도 唐의 貴人을 金寬毅는 唐肅宗, 閱讀는 唐宣宗 이라 하였고, 作帝建의 둏인 龍女를 聖源錄은 平州人 豆思坫角干의 판 이라고 指摘했다.<sup>®</sup>

如上의 系譜를 念頭에 두고, 이 說話를 檢討해 보려는 것인데,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說話的 世界의 興味는 역사 系譜②에 있으므로, 이를 中心으로 하여 考究하기로 하겠다.

說話를 몇개 引用하여 論述의 便宜를 피하고져 한다.

九龍山 在縣南 高麗國祖聖骨將軍虎景大王之祠在焉 故號聖居山或曰新羅時 有得道僧義祖者居之 山之 名以此 虎景與獵者九人 入山中擊獸 會日黑 就岩竇宿 有虎至當賣 口大吼 九人相謂 虎必欲昭我 我辈中一人 必有當之者 請各投笠虎前 虎所噬即其人也 於是皆投之 虎乃噬虎景笠 虎景即出 欲與虎鬪 虎不見而竇崩 九人皆壓死 而虎景獨生 故名九龍 今令所在官春秋行祭<sup>⑩</sup>

以上은 麗太祖 王建의 六代祖 聖骨將軍의 說話로서 高麗國祖로서는 文獻上 最高先祖의 唯一한 說話이다.

高麗之先阿干康忠 卜宅於松嶽南麓以居 其曾孫作帝建娶西海龍王女 又居於此 生四男一女 龍女於宅中期井 常由井中往來西海 戒夫曰 我將 入井 愼勿見之 作帝建後從窓隙窺之 龍女率女子至井邊 俱化為黃龍 與 雲入井 及還賣夫曰 何負約為 吾不得在此矣 遂與女變為龍 入井不還 太祖即位 追尊作帝建為懿祖 龍女為景獻王后 捨其宅為廣明寺®

이 說話는 王建의 二代配인 作帝建(景康大王)과 그의 妻 龍女(元昌王后)에 관한 이야기이다.

東國與地勝覽에서 聖骨將軍의 記錄은 金寬毅의 編年通錄의 記錄을 引用했는데 前半部는 地理志의 記錄과 같으나,後半部의 結婚談이 添加되어 있다.

……先祀山神 其神見曰 豫以寡婦主此山 幸遇聖骨將軍 欲與爲夫婦共理神政 請封爲此山大王 言訖 俱聖骨俱隱不見 郡人因聖骨爲大王立祠祭之(中略)聖骨之孫寶育 出家入智異山修道 還居此山之北岬<sup>®</sup>이와 같이 聖骨將軍의 再婚과 ユ 孫 寶育에까지 言及하였다. ユ母나

⑩ 世宗實錄 地理志 黃海道 牛峰縣.

<sup>@</sup> 同上 京畿道 開城<麗異>條

⑨ 東國輿地務覽 卷四十二牛峰縣 山川< 器居山>條

❷ 同上 卷五 開城府上 山川・≺廣明寺井>條

康忠의 誕生說話는 去勢되었다.

作帝建의 說話는 前揚 地理志에서는 引用 與據가 없이 本文에 그대로 叙述했으나 與地勝覽에는 廣明寺井 由來說話에서 高麗世系의 金寬毅所說을 引用했는데 그 줄거리는 地理志의 이야기와 大同하다를. 그러나 이 이야기의 重要한 한 部分인 七寶譚이 地理志에는 안 보이는데, 與地勝覽에 토막으로 소개되어 있다.

初作帝建娶龍女 將七寶而還 女曰 父有楊杖與豚 勝七寶 盍亦請之 作帝建請還七寶 願得楊杖與豚 翁曰此二物 吾之神通 然君有請 敢不 從 乃與其豚 居永安城一年 豚不入牢 乃語之曰 若此之不可居 吾將隨 汝所之,詰韌 豚至松岳南麓而臥 遂營新第 即康忠舊居也<sup>變</sup>.

다음은 太祖의 先考요. 作前建의 子인 世祖, 隆의 說話가 斷片的으로 실려 있다.

永安城,開城縣西江上有土城 名曰 永安 按世系 康忠娶永安村女 為妻 康忠孫作帝建 將西入唐 至海中娶龍女(中略) 龍女生世祖 世祖 當夢見一美婦 約爲宣家 後往永安城 選一女惟肖 逐與爲婚 稱夢夫人 即太祖妣威肅王后<sup>愈</sup>.

이리하여 世祖는 明堂을 얻어 太祖를 낳게 된 說話가 同語에 실려 있어 國祖說話의 마지막을 風水地理說로서 끝막었다.

世祖 又營第於舊第之南 道銑見之曰 種際之田 何種麻耶 言訖而去, 夢夫人聞而告之 世祖倒馳追及 一見如舊識 遂共登鵠嶺 宪山水之 脈曰 此地脈 自白頭山水母木幹來落 馬頭明堂 君又水命 宜從水之大數作字 六六為三十六區 則符應天地之大數 明年必生聖子 宜名曰王建 因作實封 顯其外云 謹奉書百拜 獻書于 未來統合三韓之主 大原君子

② " " < 永安城>條

⑧ " " <種僚之田>條

足下 時唐僖宗乾符三年四月也 世祖從其言 築室以居 是月夫人有娠 生太祖 [<sup>5]</sup>

以上으로 兩本에 실려 있는 斷片的인 國祖說話의 重要한 것을 重復을 避해서 대강 소개한 셈이다.

#### 결국 地理志에는

① 聖骨將軍說話는 虎口에서 救出된 場面과 ② 作帝建設話에서는 아내의 化龍譚이 簡明히 소개되었고. 與地勝覽에는 ① 聖骨將軍에 관해서는 虎口에서의 救出, 山神인 寡婦와의 再婚談이 있고, ② 作帝建에대해서는 아내의 化龍譚, 七寶與豚의 說話가 있고, ③ 世祖에 대해서는 그의 夢夫人과의 結婚, 三韓統合의 主人인 太祖의 誕生說話等 斷片的인記錄이기는 하나 좀 廣範圍하게 記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兩文獻은 한결같이, 地理志인만큼, 各 地方의 特殊性에 準하여 그 地方에 관계되는 것 만을 抄錄한 관계로 斷片的일 수 밖에 없고, 또이것의 相互 連關性은 전혀 考慮하지 않었기 때문에 重復을 不可避하게 했다. 그러나 이 高麗國祖說話는 애초부터 斷片的인 瑣言의 集合이 아니라, 하나의 統一性을 갖고 있는 獨立說話라는 것은 金寬毅의 編年通錄(高麗史 高麗世系所引)을 - 讀하면 알 수 있다. 如上의 두 文獻도 이編年通錄을 唯一한 典據로 삼었음은 勿論이다. 그러면 이 說話의 줄거리를 要約하여 아래에 소개할 必要가 있다.

「옛날 自稱 聖骨將軍(虎景大王)이란 者가 白頭山으로부터 遊曆하여 開城의 扶蘇山(松嶽)에 이르려 一子를 얻었으니 이 이가 康忠이다. 康忠은 風水家의 말을 듣고 自己 子孫에서 王者를 낳게 하려고 松嶽에 많은 소나무를 심었다. 康忠의 아들이 寶育(國祖)인데 智異山에 들어가서 修道한 居士였다. 하루는 鵠嶺에 올라가 南을 向하고 오줌을 누었더니 三韓의 山川이 銀海로 化했다는 꿈을 꾸었다.

이 꿈 이야기를 兄인 伊帝建에 했더니 伊帝建은 반드시 支天之柱를 낳을 것이라 하여 自己의 딸 德周를 그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寶 育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그 맏딸이 또 五冠山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었더니 天下가 그 오줌에 잠기는 꿈을 꾸었다. 이 꿈얘기를 들은 季女 辰義는 檢裙으로 그 꿈을 샀던 것이다. 마침 : 唐의 肅宗(閱漬 記에는 宣宗)이 潛邸時에 東遊하여 松嶽郡에 이르러 實育의 집에 머물렀다. 이에 縫衣를 핑계로 辰義와 同枕하여 아들을 낳었는데 이 이가 作帝建(懿祖)이다. 作帝建은 六藝를 兼備效으나, 特히 활 (弓)의 名手였다. 父의 信物인 弓矢를 母에게서 받고 아버지들 - 찾 으려 唐으로 向했다. 途中에 風浪을 만나 漂流하였는데 문득 한 老 翁이 나타나서, 자기는 西海의 龍王인데, 每日 如來像을 假裝한 老 狐가 괴롭혀서 못 견디겠으니, 願컨대 그 神弓으로 이를 除治해 달 라고 懇請했다. 이 말대로 作帝建은 그 妖物을 退治해 주었더니, 老翁은 기뻐하며, 그를 龍宮에 引導하고 말하기를, 그대는 앞으로 唐으로 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는 七寶를 가지고 東土에 가서 母親에 孝道하겠느냐고 물으니, 作帝建은 東土의 王이 되고져 한다 고 했다. 翁이 王은 그대의 子孫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여 아직 그 時期가 아님을 말했다. 이에 作帝建은 猶豫未答하고 있을 때 한 老 嫗가 말을 아내로 달라고 하라는 말을 듣고, 請婚하여, 만딸을 아 내로 하고 그 위에 七寶의 賞을 받었다. 將次 떠나려 할때 新婦는 作帝建에게 楊杖과 豚이 勝於七寶하니 그것과 바꿔달라고 請하라 했다. 作帝建이 그대로 請했더니 翁은 七寶에다가 도야지만을 더 주었다. 곧 배를 타고 昌陵窟前 江岸에 到達했다. 百姓들은 大慶하 여 宮室을 지었는데 그것이 永安城이다.

처음 作帝建과 龍女는 開州 東北山麓에 卜居하고 있었는데 뒤에 도야지의 案內로 松嶽麓의 康忠舊居로 移居하였다. 여기에서 要인 龍女는 男便의 違約으로 龍으로 化하여 사라져 버렸다.

作帝建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長子가 寵建으로 뒤에 隆이라 改名하였는데 이 이가 世祖이다. 世祖는 꿈에 본 美女를 現實에서 發見하고 그와 結婚했으니, 이 女人이 夢夫人, 또는 三韓之母라 하여韓氏라 한다. 隆은 松嶽南方에 新第를 세웠는데 滿月臺의 延慶宮奉元殿이 바로 그 遺跡이라 한다. 이느날 風水師 道號이 隆의 이 新第를 보고 「種際之地 何種麻耶」라고 한 것이 緣由가 되어, 이 땅은 王者가 나올 곳이오, 또 道銑의 豫言에 따라 王建이 誕生하여 배로소 三韓의 主가 되었다」

대저 재로 國家를 세워 創國의 主가 되면, 그 家系의 尊嚴을 裝飾하고, 또 그 創業의 神聖性을 誇示하려는 것은 東洋諸國에 있어서 하나의 公例가 되어 있다. 一然禪師도「帝王之將與也 膺符命・受圖籙・必有異於人者・然後能乘大變・提大器・成大業也・故河出圖・洛出書・而聖人作」 이라고 하이 帝王의 事業은 凡人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서 王業의 神聖性을 說明했고, 李奎報도 叙事詩〈東明王〉序文에서「矧明之事 非以變化神異, 眩惑衆目 乃實創國之 神迹」 이라 하고, 創國에 따르는 神異之跡은「非幻也乃聖也 非鬼也乃神也」 하여 創國說話의 神聖性을 極口肯定까지 하였다.

三韓을 統合하여 半千年의 王業을 누린 高麗王朝의 創業이 비록 門閥 없는 一介 武人에 依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後孫들은 統治者의 威嚴을 장식하기 위해서 爀爀한 家系를 꾸며야 하였고, 그 創國이 天命에 依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널리 誇示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여러가지 與件下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國祖說話라고 할 수 있다.

<sup>@</sup> 高麗史 高麗世系에서 要約引用

② 三國遺事 叙

<sup>29</sup> 李奎報作東明王序文

<sup>29</sup> 同 上

大代祖인 聖骨將軍으로부터 太祖의 誕生에 이르는 이 장황한 說話에는 여러 斷片的인 說話가 混用되었으나,全體的으로는 제법 統一된 構成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 說話가 自然發生的인 것이 아니라,意識的인 創作物이기 때문이라는 疑心도 없지 않다. 萬一 이 國祖들이 實在의人物들이 아니라면<sup>®</sup> 그 說話는 全體가 造作이라 하여도 妄言은 아닐 것이다. 또 실제로 이 說話를 分析해 보면 그런 意識的인 構成을 엿볼 수 있어 오히려 說話研究에 興味있는 資料이기도 하다.

이게 이 說話의 總體的인 考察과 說話的인 分析을 試圖하여 보겠다.

#### 2. 總體的 考察에서

첫째 大名國祖의 人物과 그 配偶者를 檢討해 보면, 그 多樣하고 異色的인 存在들어, 오로지 太祖 王建으로 集中하여 王建의 創業을 한결 壯嚴하게 裝飾하는 役割을 하였다는 것이다. 天命으로 호랑이에 依하여 死地에서 救出된 聖骨將軍은 또 山神과 夫婦가 되어 그 神聖性을 더하였고, 康忠은 永安村의 富豪의 팔과 結婚하여 累千金의 巨富일 뿐 아니라 體貌端嚴한 才士에며 寶育은 智異山에서 修道한 道士요, 寶育의 판辰義는 野室을 갖인 才媛일 뿐 아니라, 그 男便은 唐나라의 帝王이오. 作帝建은 이 國祖中에서 가장 浮刻된 英雄으로 그는 出生부터, 長成,結婚이 이 說話에서 가장 注力한 人物인 것이다. 血統도 唐나라에서 끌어 왔고, 어머니도 非常하고, 그의 아내도 龍王의 팔이다. 그 뿐 아니라 作帝建自身이 王菜을 열 大望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孫子에 와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晚時之嘆이 있다는 것을 暗示한 것이다. 다음에 世祖 隆도 英雄의 風度를 갖었으니「器度宏大 有并吞三韓之志」의 人間으로 可謂 太祖王建의 先考다운 내가 있다.

이렇게 보면 六祖는 모두 受天命者로서 王建에 이르기 까지 秩序있는

⑩ 小田省五著 朝鮮講座 一般史 p. 24 參考

段階을 가지고 내려왔다. 곧 神人(虎景)・巨富(康忠)・ 修道師(寶育)・ 店貴人(辰義의 男便)・英雄(作帝建)을 거쳐 并否三韓의 뜻을 품은 隆을 거쳐 創業主 王建에 이른 것이다.

또 이 家系의 修飾은 父系에 限한 것이 아니라 그 母系도 이만 곳지 않게 神聖化하였다. 聖骨將軍은 山神인 寡婦와 夫婦가 되었으나,「不忘 舊妻夜常如夢來合生子曰康忠」이라 됐으니 그 母系가 神異하고, 康忠의 妻 具置義도 永安村富人의 딸이오, 寶育의 아내는 그의 兄 伊帝建의 딸 이니, 寶育에게는 姪女이나 이는 寶育의 旋流夢이 반드시 支天之柱를 낳을 것이라는 데서 取한 政策結婚이다. 그리고 辰義는 이 旋流夢의 主 人公인 寶育의 빨이면서 같은 旋流夢을 갖고 있는 언니의 꿈을 사서 唐 貴人과 結合하여 作帝建을 낳었다. 作帝建은 妖物을 退治하고 龍王의 빨과 結婚하여 隆을 낳았고, 隆은 꿈에서 본 美人을 만나 結婚하였으 니, 이 이가 三韓之母라 하여 姓을 韓氏라 하였는데 과연 太祖 王建의 生母이다.

近親結婚과 母系制度의 遺痕이 없지 않으나<sup>®</sup> 한결같이 母系의 神聖 性을 意識的으로 誇示했다고 본다.

둘째 淵源기 얕은 麗太祖의 家系를 權威로서 塗裝하기 위해 에서서 新羅的 傳統을 끌어넣으려는 意圖가 强力히 作用하고 있다. 이 傾向은 說話 全體의 構成 (後述하겠음)에서도 찾어볼 수 있지만, 그 밖에도 處 處에 보인다. 虎景大王이 自稱 聖骨將軍이라 한 것은 新羅王族의 胃品 制에서 가장 오랜 聖骨을 내세웠다는 것이라던가, 이 虎景大王의 아들 康忠을 阿干이라 했는데의 阿干은 新羅의 臣稱이다. 과연 康忠이 阿干며 宣을 했는지는 未詳이나, 王族稱號에서 聖骨을, 臣稱에서 阿干을 國祖 에 冠頭했다는 것은 新羅에 대한 憧憬意識의 發露라 아니 한 수 없다.

⑩ 金馬基將 高麗時代史 p.8

粤 高麗史 高麗世系 李齊賢所引

그뿐만 아니라, 康忠이 三韓統合之主의 出現을 위해서 松嶽에 소나무를 심은 것도 新羅監干 八元이라는 風水師의 말에 依함이고, 寶育이摩訶岬에 木菴을 構築한 것을 新羅의 術士가 보고 「居此必大唐天子來作壻矣」라고 豫言했는데 과연 寶育의 季女 辰義 가大唐貴姓과 同寢하여 作帝建을 낳았다는 이야기들은 모두 新羅와 關聯을 맺으려는 意識의作用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淵源깊은 傳統에의 憧憬 意識은 또 엉뚱하게도 唐에 대한 事大主義的 思想을 곁들여 그 血統을 끌어 오는 無謀한 說話를 造作했던 것이다. 作帝建의 父系를 唐皇에게 연결시킨것은 오로지 無稽한 造作이나, 要컨대 이런 것은 모두 王氏系譜가 至尊, 至嚴하고 그 淵源이 실로 悠久하다는 것을 說明하기 위한데 不過한 것이다.

### 3. 說話的인 分析에서

이 說話를 分析해 보면, 主로 新羅·高句麗說話를 많이 導入했는데, 그 說話들이 한결같이 王이나 王后, 또는 英雄들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神聖, 高貴性을 된 說說들이 날과 씨가 되어 이 長篇說話를 形成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아래에 몇가지 類型으로 이를 分析考察하겠다. 첫째, 旋流夢과 買夢說話.

이 說話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높은 山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면 그오줌이 天下에 (或은 山川에) 充溢한다는 꿈이고, 이 꿈을 꾼者보다도 산者가 國母가 된다는 說話를 이름인데, 이 高麗國祖說話에는 旋流夢이두개가 나오고, 買夢이 하나 나온다. 하나는 寶育이 「登鵠嶺向南便旋湖三韓山川變成銀海」했다는 꿈이고 다른 하나는 寶育의 長女가「登五冠山頂而旋流溢天下」하였다는 꿈인데, 寶育의 季女 辰義가 언니에게 綾裙을 주고 이 꿈을 사서 자기의 것을 만들었다는 買夢이 그것이다. 이 說

③ 金庠基著「開國傳說의 演變에 대하여」國學論叢 p. 337

<sup>@</sup> 三國遺事 卷一 太宗春秋公條

話에 대해서는 이미 金摩基氏가 論盡한 바 있어서를 重論을 피하기 위해 詳論하지 않겠으나, 몇가지만 敷衍하겠다. 三國遺事所載의 實姬의旋流夢을 文姬가 역시 錦裙으로 사서 절국 金春秋의 姬가 되었다는 說話學와 이 辰義의 說話가 너무도 酷似하다는 것이다. 甚至於는 꿈의 代價로 비단치마가 登場하는 것이라던가, 男子가 縫衣를 請하는 것까지꼭 같다. 若干의 潤色이 있다면 金春秋의 縫衣를 처음 寶姬에게 請했더니 寶姬가 貴公子에게 輕率히 가까히할 수가 없다고 (或은 病으로 不進) 拒絕하였는데, 辰義의 경우는 그 언니가 唐貴人의 옷을 꿰매리고 그 방에 들어가려다가 갑짜기 코피가 나서 못들어 갔다는 것이다. 이 鼻衄의 場面이야 말로 극히 不自然스러운 脚色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性格上 이 旋流夢은 女子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이는 더 考究의 餘地가 있다고 본다) 이 것을 男子인 寶育의 꿈에까지 附會시켰다는 것, 더욱이 같은 說話에서 父·女가 同類의 꿈을 갖었다는 것은 拙劣한 牽强이 아닐 수 없다. 결국 新羅統三의 英主인 金春秋의 說話是導入하여 王氏系譜를 장식하였다는데 不過하다. 다음 이 買夢의 說話는 外國에도 흔히 있다. 日本의 , 尼將軍平政子의 出世譚같은 것은 우리의 買夢說話와 酷似하다는 것이다. 题

둘째, 作帝建과 類利·居陀知

作帝建은 東明王說話에 나오는 類利의 경우와 비슷하다. 朱蒙이 南奔할 때에 腹中에 있는 이이를 위해 信物을 남기고 간 것이나, 後日 類利가 어머니에게서 아버지가 非常人이라는 말을 듣고 父의 信物인 斷劍을 들고 아버지를 찾어 나섰다는 대목이 있다. 作帝建도 그 아비가 누구인지 몰랐다가 어머니에게서 唐父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信物인 弓矢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 唐나라로 向했다는 것은 部分的이나마 聯關性

<sup>◎</sup> 金庠基著[開國傳說의 演變에 對하여] 國學論叢 P. 337

<sup>@</sup> 三國遺事 卷一 太宗 春秋公修

<sup>®</sup> 小田省五著 輔鮮史講座, 一般史 p.28

이 깊다. 뿐만 아니라, 作帝建이 百發百中의 神弓이었다는 것은 朱蒙의 善射와도 一脈 通하는 이야기이다. 善射의 英雄을 만들려 할 때에, 高 句麗의 開國英雄이 그 意識世界에 作用하였다는 것은 可能한 일이며, 더욱 高句麗國의 계승을 自負하는 高麗國祖說話에 있어서는 極히 當然한 影響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類利가 아버지를 찾어서 그 나라를 계승하는 것과 같은 경로로 作帝建의 說話를 이끌어 나아가다가는 計劃된 軌道에서 脫線하게 되겠기에,이 說話는 또 다른 줄거리와 接木할 運命에 있는 것이다. 萬一作帝建이 渡唐하여 父王을 찾었다면,高麗建國과는 關係가 없어지고 말기때문이다. 그리하여 入唐途中 風浪을 만나는 것을 契機로 作帝建은 惡魔退治의 英雄으로 化하는 것이다.이 惡魔退治의 英雄說話는 結婚으로 結末되는 것이 東西洋의 公式이다.이제 作帝建은 英雄을 만들어야하고,國母가 될 그의 아내를 龍女로 하기 위해 新羅의 英雄 居陀知說話가 必要했던 것이다.이 兩 英雄說話를 比較하기 위해 아래에 두 原文을 引用하여 参考에 供하겠다. 먼저 作帝建의 說話는 이러하다.

「……於是 欲觐父 寄商船行至海中 雲霧响暝 舟不行三日 舟中人卜曰 宜去高麗人(閔濱編年 或云 新羅金良貞 奉使入唐 因寄其船 良貞夢白頭翁曰 留高麗人 可得順風) 作帝建執弓矢 自投海 下有嚴石立其上 霧開風利 船去如飛 俄有一老翁拜曰 我是西海龍王 每日前 布老狐 作熾盛光如來像 從空而下 羅列日月星辰 於雲霧間吹螺擊鼓奏樂 而來 坐此嚴 讀臃腫經 則我頭痛甚 聞耶君善射 願除吾害 作帝建許諾及期間 空中樂聲 果有從西北來者 作帝建疑是 眞佛不敢射 翁復來目正是老狐 勿復疑 作帝建撫弓撚箭候 而射之 應弦而墜果老狐也 翁大喜迎入宫 謝曰 賴朗君吾患已除 欲報大德 將西入唐 覲天子父乎 富有七寶東還奉母乎 曰 吾所欲者王東土也 翁曰 王東土待君之子孫三建必矣 其他惟命 作帝建聞其言 知時命未至 猶豫未及答 坐後有一老嫗

獻曰 何不與其女而去 作帝建乃悟 請之翁以長女妻之」 다음은 居陀知의 說話이다.

「此王(虞望女王)代 阿袞良貝 王之季子也 奉使於唐 聞百濟海賊梗 於澤亮 選 弓士五十人隨之 紅衣鵠島 風濤大作 信宿狹句 公患之 使人 卜之曰 島有神池 祭之可矣 於是具奠於池上 池水湧高丈餘 夜夢有老人 謂公曰 善射一人 留此島中 可得便風 公覺而以事諮於左右曰 留誰可 矣 衆人曰 宜以木簡五十片 書我輩名 沈水而腳之 公從之 軍士有居陁 知者名 沈水中 乃留其人 便風忽起 紅進無滯 居陁愁立島嶼 忽有老人 從池而出 謂曰 我是西海若,每一沙彌 日出之時 從天而降 誦陁羅尼 三歲此池 我之夫婦子孫皆浮水上 沙彌取吾子孫肝膓 食之盡矣 唯存吾 夫婦與一女爾 來朝又必來 請君射之 居陁曰 弓矢之事吾所長也 聞命 矣 老人謝之而沒 居陁隱伏而待 明日扶桑旣敬 沙彌果來 誦史如葭 欲取老龍肝 時居陁射之中 沙彌即變老狐 墜地而斃 於是老人出而謝曰 受公之賜 全我性命 請以女子妻之 居陁曰 見賜不遺 因所願也 老人以 其女變作一枝花 納之懷中 仍命二龍 捧居陁知及使紅 仍護其紅入於唐 境 唐人見新羅紅有二龍負之 具事上聞 帝曰 新羅之使 必非常人 賜宴 坐於彩臣之上 厚以金帛遺之 既還國 居陁出花枝 變女同居焉」®

위의 두 記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同系의 說話이다. 첫제 作帝 建이나 居陁知가 모두 활(弓)의 名手요, 둘째, 妖怪가 老狐라는 것, 셋 째 龍女와 結婚했다는 것등은 그 根幹的인 共通點이거나와, 入唐途中에 風浪을 만났다는 것이나, 妖怪가 佛家르 偽裝했다는 것등의 枝葉的인 面도 兩者가 酷似하다. 그러나 이 同系의 妖怪退治說話에서 居陁知는 唐皇으로 부터 厚待를 만있는데, 作帝建은 龍王에게서 七寶와 神豚을 厚賞으로 받었다는 後日譚이 異彩를 띄우고 있으나, 이 程度의 潤色은 그리 근문제가 안 된다. 要는 作帝建說話에 있어서는 高麗王國의 建設

<sup>∞</sup> 高麗史 高麗世系

Ø 三團遺史 卷二 真聖女大王 居随知條

을 意識한 것이데, 王建立國의 時期를 豫言하고, 神豚이 松嶽南麓을 卜 地하는 등의 이야기가 이 英雄說話에 接技해서 國祖說話를 生色나게 했 을 뿐이다.

그러나 英雄說話는 반드시 龍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 龍의 困境을 救해 주었다는 데서, 이說話는 龍의 陰報說話와 關聯을 갖게 된다. 이것은 李氏朝鮮의 國祖說話에 나타나는데, 역기서는 白·黑의 或은 黃, 白雙龍의 爭鬪를 度祖(或은 穆祖)가介人하여 어느 한편을 退治해 중으로써, 그 應報로 子孫이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래에 參考로 두 記錄을 引用한다.

「度祖夢有告之者曰 我白龍也 今在某處 黑龍欲奪我居 請公救之 度祖覺 以爲常而不異之 又夢白龍復來懇請曰 公何不以我言爲意 且告之日 度祖始異之 至期帶弓矢往觀之 雲霧晦冥 有白黑二龍 方鬪淵中 度祖射黑龍 一矢而斃 沈干淵 後夢 白龍來謝曰 公之慶 將在子孫」<sup>18</sup>

「一日夜 有一人見夢曰 吾乃某池之龍也 某池龍 慾奪我居 明日當與 格之 彼强余不能格 幸子效我 穆祖曰 何以知主客也 曰 彼白而我 黄 以是分之 穆祖許之 翌日詰朝 手弓而往 俄而池水湯潏 水波湧飜 黄白二龍 交纏糾熮 宛轉水而 穆祖一矢 正中白者 池水蠹赤 白龍逃去 是夜 又夢而告之曰 賴子得保 將必厚報 當於子孫之云云」<sup>29</sup>

이 두 說話는 同一한 것이다. 度祖가 穆祖로, 白, 黑龍이, 黃, 白龍으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前者의 說話가 後者에 와서 訛 變했다는 說⑩이 妥當한 것이다. 그런데 이 說話는 이른바 妖怪나 惡魔 退治의 英雄說話와는 그 類를 달리한다. 왜냐하면 이 說話에는 惡魔나 妖怪가 따로 登場하여 理由없이 相對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相對가 同等한 龍으로서 오직 居處爭奪의 鬪爭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雙

⑱ 龍飛御天歌 卷四「黑龍即獲云云」條의 註.

<sup>@</sup> 車天略 五山競獎基

⑩ 金庠基著「開林傳説의 演變에 대하여」(國學論叢)

龍의 格鬪에서 이느한 쪽 (可及的이면 弱한 편이겠지)을 救해 준 報應으로 그 子孫이 王業을 차지하게 된다는 李氏王業의 神聖性을 修飾한 說話인 것이다. 오직 여기 나오는 武器가 弓矢라는 것이 우리의 開國神話에 있어서 共通하다는 것이 注目이 된다. 朱蒙도 作帝建도 弓矢로 裝飾된 英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創國說話로서의 共通點은 作帝建은 龍王에게서 神豚을 얻어 그 神豚이 王業의 基地를 擇하게 했다는 것이 오, 度祖 (或은 穆祖)의 경우는 莫然하게나마 後孫이 王業을 누릴 것이라는 祝福이 그것이다.

龍은 護國의 象徵으로 東洋에서는 예로부터 聖獸로 알려져 왔거니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예로부터 여러가지 吉祥의 십볼로 神聖視 했을 뿐 아니라, 國家的인 運命에 관한 여러 說話를 만들어 냈다. 이미 揭示한 動物說話中 龍에 관한 것이 絕對多數임은 이를 說明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高麗創國을 裝飾하는 國祖說話에서 龍이 登場하는 것은 自然의 理요, 더욱 新羅傳統에 대한 憧憬意識에서 龍女를 國母로 내세웠다는 것도 當然한 構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新羅始祖 赫居世妃 閱英이 龍 女라는® 것이 이에 作用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쳋刺,與龍女交婚說話**.

作帝建이 妖狐를 退治하여 龍王을 救해 주었고, 그 報應으로 龍女와 結婚하였고, 그 龍女가 결국은 國母인 麗太祖의 祖母가 되었다는 것은 說話 構成上 無理가 없다.

交婚이란 人間이 人間以外의 存在와 結婚하는 것으로, 說話上 非常人 은 이런 交婚에서 誕生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類의 說話는 실로 許多하다. 桃花郎과 舍輸王의 魂鬼과의 交婚으로 鼻荆郎이 誕生했고

④ 三國史記 卷一 新羅紀 始祖赫居世居西干 五年條,三國遺事 卷一 赫居世王條,

❷ 三國遺事 卷一 桃花女. 鼻荆郎.

光州의 女人이 蚯蚓과 交婚하여 甄萱을 낳겼다; 건등은 그 代表요. 龍과의 交婚으로는 萬里山의 羅刹女가 毒龍과 交通하였다는 說話@가 있고 龍女가 朴進士의 피리소리에 感激하여 그를 男便으로 삼었다는 浪 漫的이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龍과의 交婚으로 貴子를 넣었다는 이야 기는 百濟 武王의 誕生說話가 있다. 이는 寡婦가 池龍과 交通하여 武王 을 낳었다는 이야기인데◎ 以上 例擧한 諸說話에서 朴進士說話를 除外하 고는 모두 女子가 人間이다. 그런데作帝建의 경우는 男便이 人間이오, 아내가 龍女라는 것이다. 按천대 어머니가 人間이오, 그 父系가 人間以 外의 存在라는 것은 母系制度가 尚存한 古代社會일수록 후히 있는 說話 인데 高麗國祖說話에도 아직 母系制의 遺痕이 남아 있음에도 不拘하고 父系로서는 人間 作帝建을 내세우고 母系로 龍女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정영 興味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全體의 血統은 一貫性이 없 는 混血을 招來했다. 이것은 國祖家系의 裝飾에 있어서 過大한 慾心이 作用했기 때문이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新羅的 傳統의 導入만으로 는 不滿이기에, 大唐의 血統을 奇跡的으로 끌어 드렸고, 여기에 또 護 國神이오, 國家의 象徵인 龍을 끌어들여야 하겠기에 作帝建으로 하여금 龍王을 救하게 했고, 그 武勳의 代價트 龍女를 娶하게 했던 것이다.

과연 作帝建은 龍女와 交婚하여 「三韓之志」를 併吞할 수 있는 大器量의 龍建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龍이 관련된 國祖說話에서 인지 高麗에서는 太祖의 後裔를 가리켜 「龍子」・「龍孫」・「龍姬之子」라 하였고, 金庠基教授도 引用한 바와 같이® 稠王을 辛吨의 아들이라고 몰아세울 때 褐王은 龍孫입을 證明하기 위해 左脇下의 龍鱗을 提示하였다®

<sup>43</sup> 三國遺事 卷二 後百濟 甄萱

④ 三國遺事 卷三 魚山佛影

⑤ 東國興地勝覽 卷四十二 牛峰, 山川 <朴淵>條。

⑥ 三國遺事 卷二 武王, 卷三 法王禁殺.

④ 金庠基著 高麗時代史 p. 6.

④王「王(隅王)臨刑 請衆人曰 吾王氏 本龍孫也 左脇下 必有三鱗 世為之衰 遂解衣示人 左脇下 果有三鱗 金色大如錢 衆皆驚駭悲慟」(燃藜室記述 卷一 高麗政亂 王業靡基條)

하니 이 역시 龍女를 國母로 하는 國祖說話에서 由來한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이 龍과 곁들여서 한가지 더 敷衍할 것이 있다. 그것은 호랑이의 이야기이다. 龍은 想像의 動物로서 神聖視되지만, 虎公은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살어왔고, 또 살고 있는 動物로서 예로부터 山神靈으로 俗信의偶像이 되여 있었다. 이 虎公이 高麗國祖說話에서 또 重要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聖骨將軍인 虎景이 隣人九人과 함께 九龍山에사냥을 갔다가 唯獨 그만이 虎公의 誘引으로 竇崩의 危機에서 살어났다. 그런데 아래의 記錄은 이 虎公과 山神인 寡婦와의 어떤 聯關性을 示唆해 주는 것 같다.

「……祀山神 其神見曰 予以寡婦主此山 幸遇聖骨將軍 慈與爲夫婦 共理神政 請封爲此山大王 言志 與虎景俱隱不見 郡人因封虎景爲大王 立祠祭之 [<sup>19</sup>]

이 記錄의 山神인 寡婦는 결국 虎景을 死境에서 救해낸 虎公이 아니었던가 推測되는 바이다. 虎公이 山의 主神이었다는 것은 흔히 있는 우리의 民俗이라는 것이 이를 說明해 줄 뿐 아니라, 說話의 構成으로 보아 이 推測은 오히려 妥當한 論理라고 생각한다. 더욱 호랑이와의 交婚說話가 많이 있다.®

至嚴,至聖한 것으로 修飾하려는 이 說話에 있어서 우리 俗信의 靈獸인 虎公과 關聯시켰다는 것도 首肯이 간다.

以上에서 考察해 본 바와 같이 이 高麗國祖說話는 첫째, 羅·唐의 傳統과 血統의 導入으로, 둘째, 高句麗, 新羅의 英雄說話의 導入으로, 셋째, 龍, 虎 등의 聖獸의 潤色으로 莊嚴, 神聖, 嚴肅한 說話로 修飾했다는 事實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 여러 枝葉的인 面에도 相當히 많은 旣成說話의 要素를 곁들이고 있으나, 여기서는 論外로 하겠다.

<sup>49</sup> 高麗史 高麗世系 所引

⑩ 三國遺事 卷五 金現感虎と ユ 一例이다.